

학교 단위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전북교육청,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77곳 선정 담당교사 대상 설명회서 운영 방향·세부 계획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단위 학교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나섰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5학년도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학급 중심으로 150개 학급, 40개교에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77개 학교, 50개 학급을 선정해 학교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교육과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 학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운영 규모에 따라 400만~1,200만원까지 예산이 차등 지원되며, 학급 단위에는 1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된다. 지원된 예산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배출 감축 활동, 환경교육 교재·교구 구입, 전문가 초청 특강, 탄소중립 실천대회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운영 방향과 세부 계획을 안내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학급 단위의 활동을 넘어 학교 전체가 친환경 실천 공동체로 전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등학교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교 및 학급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

학생 자치 역량 제고... 군산 부설초, 리더십 캠프

전교·학급 학생회 임원 대상... 지구시민교육·에코리더십 프로그램 등 진행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교 및 학급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학생 자치의 핵심 주체인 학생회 임원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류지득 (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훌륭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지구시민교육, 에코리더십 프로그램 등은 참여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전교어린이회 회장은 "학생회의 대표로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더

멋진 군산부설초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신철 교장은 "이번 캠프가 우리 학교 학생 임원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30일까지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30일까지 14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모든 교육지

원청에 설치된 센터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구,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

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센터별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컨설팅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실질적인 점검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고독성 농약 대체 연구 '우수'

전북대 김소연 석사과정생



농약, 가루가 나무줄기에 대해 에틸포메이트와 설푸릴푸루오라이드 혼종제 각각의 살충 농도와 시간 및 상승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김소연 석사과정생은 "목재류에 대한 동 약제의 침투성과 수확성, 그리고 대규모 현장 시험을 통해 약제 처리기준을 설정해 볼 계획"이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김소연 석사과정생(농화학·지도교수 박민구)이 검역용 혼종제인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 개발 연구로 최근 열린 '2025 춘계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수입 목재류의 주요 검역용 혼종제인 메틸브로마이드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면서 고독성 농약으로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김 석사생은 에틸포메이트와 설푸릴푸루오라이드 약제의 목재류 해충인 일본흰개미, 솔수염하늘소, 가루개나무좀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 석사생은 목재류에서 검출되는 일본흰개미, 솔수염하

국립군산대, 농림축산검역본부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돼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장민석)은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책임자 생명과학과 김효중·최영준 교수)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는 이번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통해 검역본부에서 수행되는 전북지역 관내 외래병해충 유입·확산 차단, 비래해충 유입 우려 지역인 군산항(기타 도서지역 등) 등 중심으로 예찰감화, 신속한 분류동정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병해충 확산 차단, 양 기관간 식물병해충 정보 공유 및 예찰인력 양성 등 국가검역에 필요한 중요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최영준 센터장은 "국가 항만 등 중요시설이 있는 군산에서 검역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통해 검역규제대상 외래 병해충에 대한 모니터링 전략 수립 및 외래생물 유입 시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예찰 업무를 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붉은불개미, 서양가시엄겨위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래 검역동식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호남본부와 매년 정기적인 합동예찰 및 방제활동 실시했고, 검역예찰 사업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씽(Think)어게인, 익산' 운영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4월부터 7월까지 익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 씽(Think)어게인, 익산'을 운영한다.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주체가 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찾아보고, 이를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더해 '역사·문화 현장탐방'을 신설해 주제의 다양성과 참여 폭을 넓혔다. 지난 11일 전북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5월에 익산고등학교와 황등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지원

전북교육청, 15~16일 성립전 예산·추경예산 편성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5~16일 이틀간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립전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는 이 교육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K-에듀파인은 유아교육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

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신뢰도를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치원의 행정 역량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K-에듀파인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북자치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2일 스타센터 107호에서 도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5개 공공기관 실무자가 참여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실무자가 직접 현장 직무와 채용 절차 등을 안내해 취업 준비생들이 기관별로 상이한 채용 방식과 준비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 전략을 구

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학생은 "도내 공공기관으로 취업하고 싶은 막연한 목표만 있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준비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